



기획 1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가을날의 초대

만추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10월 어느 날, 우리 회사는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초청행사'를 실시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녀가 근무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팬데믹으로 중단한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해당 기간 입사한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직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마련한 이번 행사는 참여한 부모님과 직원 모두 'HD현대오일뱅크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글 홍보팀 사진 류창렬



## 서프라이즈 저녁 만찬

'요건 몰랐지?' 저녁 만찬은 부모님 몰래 준비한 직원의 영상 편지와 함께 시작되었다. 평소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감사 인사를 영상 편지를 통해 전했고, 장성한 자식의 모습에 부모님 눈시울이 붉어지는 가슴 뭉클한 현장이었다. 한동안 잊고 지낸 치열하던 젊은 시절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 싶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정성껏 준비한 꽃과 선물을 전달하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만찬을 즐겼다.



## 아들, 딸 일터 구경 오세요

임직원의 환영 속에 대산 공장에 도착한 직원 부모님은 먼저 우리 회사와 계열사 설비를 견학했다. 400만 m<sup>2</sup>에 달하는 공장을 둘러본 한 직원의 아버지는 "상상한 것보다 규모가 엄청나서 놀랐다.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는 정유 공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아들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공장 설비 외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현대서산농장 간척지를 돌아보며 시간을 보낸 가족들. 자녀의 근무지 방문은 쉽지 않은 일하기에 직원과 부모님 모두에게 이번 행사는 더욱 의미가 깊다.





### 함께 걷는 길

첫째 날이 임직원의 안내로 우리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자식의 일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둘째 날은 평소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수덕사에 둘러 고즈넉한 사찰을 둘러보고, 근처 메타세쿼이아길에서는 여유롭게 산책하며 선선한 가을 정취를 한껏 느꼈다. 장성한 자녀와 걸어보는 게 얼마 만인지! 부모님의 얼굴에선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 더 멋진 내일을 기약하며

산책을 마친 후는 행사를 정리할 시간. 각자 짐을 정리하고 이틀간 정들었던 다른 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1박 2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부모님은 “평소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모님과 참여한 직원은 “올해 들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를 한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4년 만에 새롭게 열린 이번 행사는 회사와 직원, 부모님 모두 ‘한 가족임을 느끼고 모두가 만족한 알찬 시간이었다.

